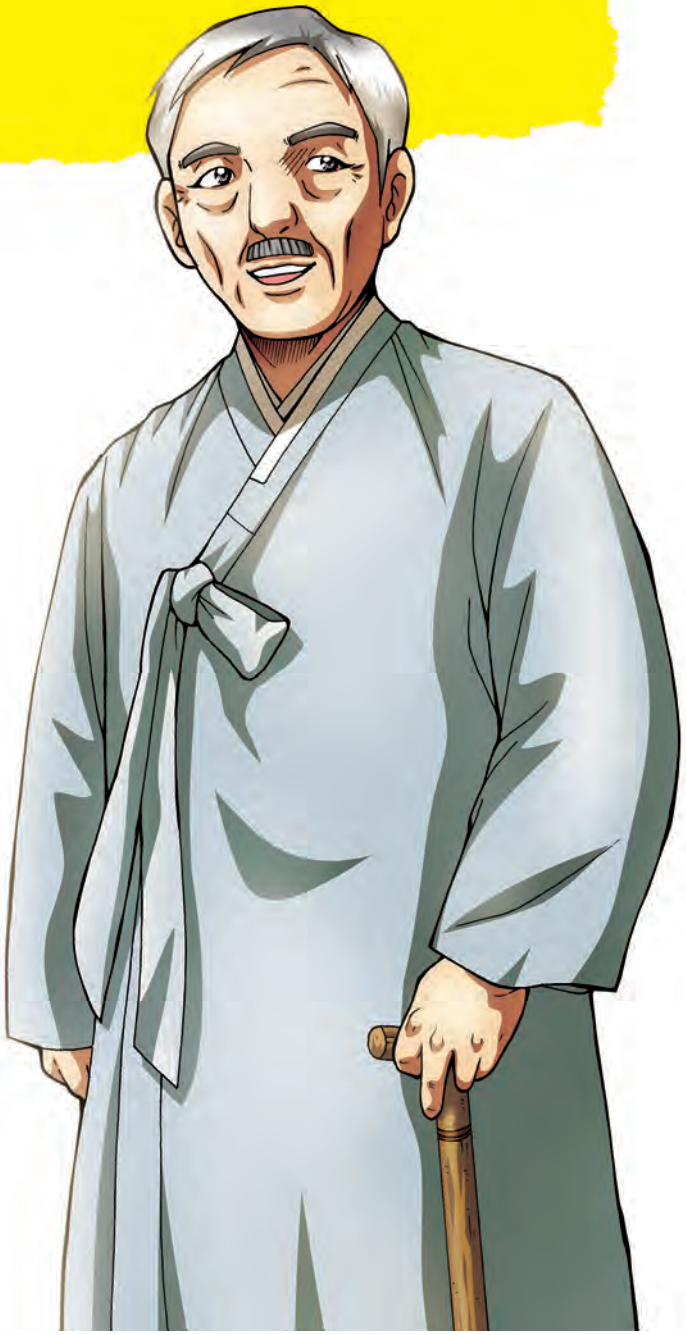
정의를 바로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글 콘텐츠하다 · 그림 이두원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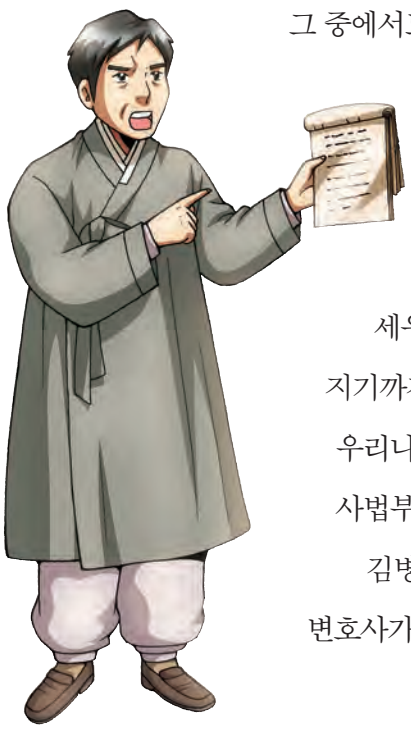


책을 펴내며

사법부를 세운 나라의 큰 별,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만화로 소개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법원에 가본 적 있나요?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다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이처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법관이라고 합니다. 운동 시합의 심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 바로 김병로 선생님이랍니다. 김병로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광복 후에는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셨어요. 우리나라에 대법원과 여러 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큰 역할을 하고, 법전을 편찬하고 법관을 뽑는 등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사법부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김병로 선생님은 법관들에게 오직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권력에 휘둘리

지 않고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강조하셨죠. 평생을 그렇게 청렴하고 강직하게 사셨던 김병로 선생님의 삶은 '정의로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김병로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법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뜻을 이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김병로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과정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법관의 꿈을 가진 친구들은 물론 또 다른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줄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김병로 선생님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내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김병로 선생님과 함께 과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
가인 김병로

가인(街人)은 나라 없이 방황하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제강점기에 김병로 본인이 스스로에게 붙인 호입니다. 가인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기틀을 세웁니다.



아내
정연일

김병로와 결혼해 4남매를 낳고 다복하게 살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일본 경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김병로를 잡기 위해 거짓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친구들

일제강점기에 김병로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변호사들로, 해방 이후엔 같이 법전을 편찬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친일경찰 노덕술, 김태석, 김덕기

친일파 경찰들은 해방 후 재판을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김병로와 갈등합니다.





책을 펴내며 • 4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 6

제1장 의병이 된 어린 유생 • 8

궁금해요 김병로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조선시대에도 법관이 있었나요? • 32

제2장 변호사의 꿈 • 34

궁금해요 김병로 선생님은 왜 일제강점기에 변호사가 되려고 하셨나요? • 56

제3장 독립을 변호하다 • 58

궁금해요 김병로 선생님이 변호한 또다른 독립운동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86

제4장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다 • 88

궁금해요 대법원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 116

제5장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 118

궁금해요 김병로 선생님이 만드신 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 146

제6장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다 • 148

궁금해요 퇴임 후 김병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 172







01

의병이 된 어린 유생








김병로는 1887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리는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시골마을이었어요.
내가 이기면
진짜 형이라고
부르는 거다!
!
챠앗


김병로 이겨라!
이춘복 이겨라!
아싸!
끼끼끼
빨리 형이라고 불러.
와락
아~ 또 시작이다.
외아들에 2대 독자인 김병로는 어린 시절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무척 부러워했어요.
어쭈~ 형님한테!
맨날 형! 형! 넌 지겹지도 않냐?
형아, 나 응아!
어기적


너 아까도 쌌잖아!
무지 급한 것 같은데.
아이고.
어휴, 이 녀석~
너 남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내 동생 데려가라.
히히.
뿌직
윽! 조그만 게 냄새 한번 독하네.

애비야~ 정신 좀 차리렴.

병로 아버지!

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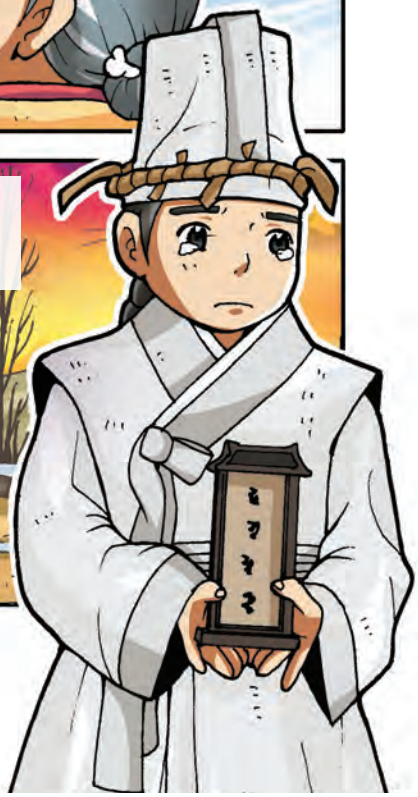
엉

그런데 김병로가 8살이 되던 1895년. ***사간원 정언**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애비야. 이 어린 것만 두고 떠나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머엉

가족이라고는 연로하신 할머니와 어머니, 어린 여동생뿐이다 보니 김병로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 사간원은 지금의 감사원과 비슷한 곳으로, 정언은 국왕과 관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어요. 양반이기는 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김병로는 직접 농사일까지 돌봐야 했지요.
일도 안 해본 놈이 너무 무리하면 병 난다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할머니는 김병로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로를 잘 부탁드립니다.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이것은 무슨 뜻인고? 병로, 대답해 보거라.
그, 그게…… 며칠 전에 분명히 외웠는데.
어떻게 논어 첫 구절을 모르냐?
기응
아버지가 사간원 정언이란 것도 거짓말 아냐?
스승님,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보거라.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휠떡
집안 형편 탓에 늦게 공부를 시작한 데다가 낮에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김병로는 또래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무척 속상했어요.
휠떡
병로야,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저는 머리가 나쁜가봐요. 분명히 외웠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호호. 니 애비가 생각나는구나.
아버지요?
그럼~ 니 애비도 얼마나 회초리를 많이 맞았는데.
정말요?
하지만 공부라는 게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 점점 아는 게 많아져서 훨씬 쉬워진단다.
니 애비는 우리 병로보다 더 공부를 못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데.


김병로는 할머니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어려운 책들까지 술술 읽을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어요.
툭
김병로는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잠들지 않을 정도로 책에 빠져들었지요.
꼬끼오
벌써 아침인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君子 喩於義 小人 喩於利.)
군자는 정의를 통해 이해하고 소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16살이 되던 해. 김병로는 목포로 유학을 떠났어요. 시골마을에서는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었죠.
우와! 저게 뭐야!
730
이게 말로만 듣던 일본 군함이구나. 이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다에 뜰 수 있지? 서양 문물의 힘이 대단하긴 하구나.









***메이지 유신** : 일본이 서구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해 사회의 많은 부분을 개혁한 과정을 뜻합니다.



*을사조약 :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는 협정이나 조약을 일본이 대신 맺어준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이는 곧 주권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순신 장군님! 이 일을 어쩐대요~
왜놈, 이 도적놈들!
탁
탁
나라를 빼앗겼다고!
뜨끔
이 사람아, 조용히 하고 귀 좀 대보게.
이 판국에 귀는.
툭
지금 순창에 최익현 선생이 와 있다네. 우리도 거기 합세하세.
의병을 일으키셨다는 그 최익현 선생 말인가?
지금 뭐라고 하셨소?
최익현 선생이 어디 계시오?
쉿! 조용히 하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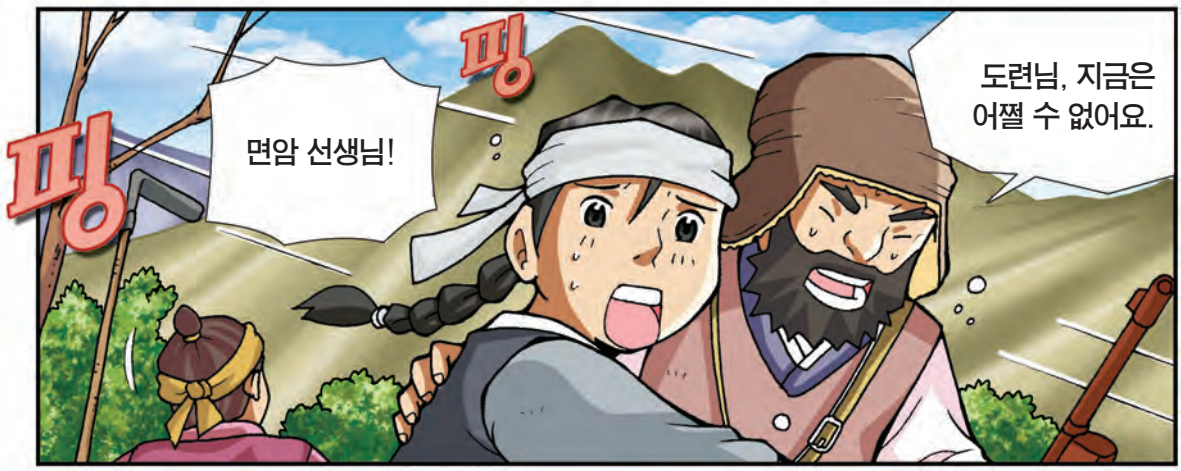

김병로는 당장 순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최익현 선생님이 계신 데 맞지요?
저도 의병이 되고 싶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흔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운 투사였습니다.
흠.
기특한 소년이구나. 그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힘을 합해 싸워보자꾸나.
끄덕
네.


김병로는 집안의 산지기이자 총을 잘 쏘기로 유명한 채병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련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오?
소식은 들었는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 거절해도 괜찮네. 다 이해하네.
아따~ 도련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하게 하시오.
채병순은 자신이 아는 포수 대여섯 명을 더 모아 김병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저더러 가만있으라고요? 제가 왜놈들 다 명중시켜버릴 테니 걱정 마시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나.


순창 홀어미산성
조선 병사들과는
싸울 수 없소.
대장을 불러주시오.
얼른
발사하라!
아니,
저 사람들은
조선 사람
아닌가!


어서 쏘지 않고 무엇 하나!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빨리 쏘란 말이다! 다들 죽고 싶나?
탕
슈우
아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우릴 용서하시오.
탕
탕
탕


악!
투둑
헉!
떡
전군 후퇴!
후퇴하라!
핑
핑핑
의병들은 끝까지 조선 군인들을
공격하지 않고 사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얼른
후퇴합시다.
내가 대장 최익현이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이놈들아!
척


면암 선생님!
땅
땅
도련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최익현 선생은 남은 의병들을 모두 후퇴시키고 혼자
일본군에게 잡혀가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병로는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지요.





늦은 밤, 김병로와 의병들은 일본군 간부와 그 부하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를 급습했습니다.




와
와아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의병들은 일본군 간부 한 명을 총살하고 인근 지역을 일본군의 점령 하에서 구해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적중했어.


어서 다른 놈들을 해치우러 갑시다.


의병들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영남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탕
탕
와
아
일본군 기마부대가 의병들이 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해왔습니다.
이런, 급습이다!


대한…독립…만세!
최고 실력의 병사들만 모아 놓았다는 기마부대의 말발굽과 최신식 총기 앞에 의병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군은 살육과 약탈, 폭행과 방화를 서슴지 않으며 의병 대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병
의 포병장 채상순의 묘
크윽
대체 어떻게 해야
자네와 면암 선생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김병로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큰 힘과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궁금해요 ❶

김병로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조선시대에도 법관이 있었나요?

김병로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에요. 가인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사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누가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 조선시대의 명법관 어사 박문수, 다산 정약용

여러분은 동화책에서 원님이 재판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님들은 나쁜 도둑놈이 있다면 잡아서 벌을 주고,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진실을 밝혀 옳고 그름을 가려냈죠. 암행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법관과 하는 일이 비슷하죠.

탐관오리를 찾아내 벌을 주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어사 박문수나 원님으로 지내는 동안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까지 펴낸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명법관이었답니다.



다산 정약용
(丁若鏞, 1762.6.16~1836.2.22.)

❖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

하지만 만약 원님이 뇌물을 받거나 실수를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삼심제처럼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원님이 내린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원님보다 벼슬이 높은 관찰사에게 항소하고, 관찰사의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면 왕이 있는 중앙 정부의 형조나 사헌부에 상소할 수 있었지요.

지금과 비교하자면 원님이 지방법원 판사, 관찰사는 고등법원 판사, 형조나 사헌부의 관리들은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정약용이 저술한 법 관련 책.
〈흠흠신서(欽欽新書)〉란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

❖ 왕이 법관이라면?

이처럼 조선은 법에 따라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헌법도 있었지요. 그러나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데도 국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답니다. 각 지방으로 가면 원님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요.

그런데 국왕이나 원님은 법관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같이 해요. 그럼 정치적인 문제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자기편의 이익과 상관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겠지요.



조선시대 때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경국대전〉



오늘날의 '소장'에 해당하는 소지(所志)

❖ 조선시대와 현대 사회의 차이점, 사법부의 독립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공정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여긴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원과 법관이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정정당당하게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제아무리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니까요. 때문에 법관에게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함이 꼭 필요하답니다.



옛 대법원의 모습



메이지 법과 대학 시절.
왼쪽에 앉은 사람이 가인 김병로 선생님

02



변호사의 꿈






의병 운동을 하는 사이 훌쩍 성장한 김병로는 1910년 3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201
어미 걱정은 말고.
꼭 변호사가 돼서 돌아올게요.
변호사로서 억울하게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와 네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널 응원하실 게다.
끄덕
뿌웅


일본으로 가는 배 안
웅성
웅성
핵
앗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덥석
덥석
별 수상한 물건은 없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테니 조심하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꾸욱
뭐요? 당신도 한 패요?
참아요. 참아.


아니, 어딜 봐서 내가 일본 헌병놈하고 한 패란 말이오!
일본 헌병이라고요?
헌병이 왜 나를 쫓는 거지?
ちとせ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김병로의 뒤에는 계속 미행이 붙었습니다.
병로야! 이게 얼마 만이냐.
컥! 숨막힌다.
오느라 고생했어.
잠시만.


무슨 일인데?
누군가 날 미행했어.
저기 봐. 저 사람이야.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겠지.
경찰?
내가 의병운동을 해서 그런 걸까?
아니야. 지금 조선인 유학생 대부분이 미행을 당하고 있어.
안중근 의사 때문이겠지.
조선인 유학생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감시하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 :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일본의 정치가


웅성
웅성
펑
펑
펑
일본의 잘못을 고발한 안중근 의사에게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세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 안병찬 변호사를 비롯해 영국인 변호사와 러시아 변호사까지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에게 전쟁 포로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오.
미하일로프 변호사 (러시아)
더글라스 변호사 (영국)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독립 전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흥!
안병찬 변호사


일본은 판사와 검사는 물론 변호사까지 모두 일본인으로 꾸민 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갔습니다.
끄덕
안중근, 사형!
땅
땅
땅
땅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웅성
아주 일본인들 멋대로구만.
웅성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만 했었더라면!
탕
이건 분명히 정당방위라고!
일본인 변호사가 대체 뭘 했겠어?
짜식~ 그래서 법대를 가겠다는 거구나.
응. 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일본과 싸울 거야.
끄윽
역시 내 친구답다! 하하. 기분이다, 내가 한잔 산다!
김병로의 법대 입학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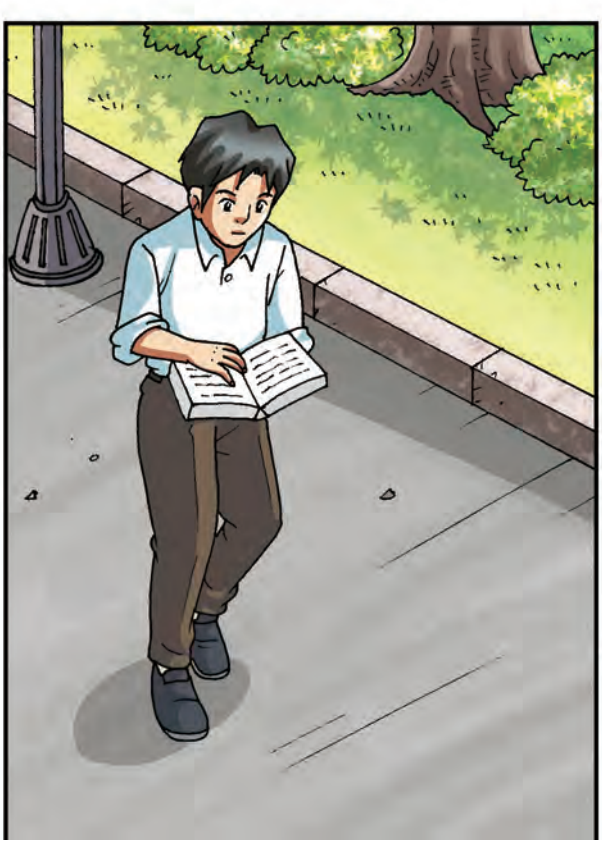

하지만 일본에서의 유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포함 한 달에 12원입니다.
6원 정도 하는 하숙은 없을까요?
뭐야, 가난뱅이잖아.
쌀 한 가마니에 5원인데 하숙비가 12원이라니 …….
어떻게든 집에서 보내주는 20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쾅
달동네나 찾아가 보시오!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은 일본의 비싼 물가 때문에 구두닦이, 접시닦이, 신문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은 2원이라고요?
그래요. 정 돈이 없으면 일자리라도 구해보든가.
일과 공부를 함께하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데 어쩌지?
직원 모집
근무시간
12:00-6:00
일본 메이지 법대











***편입** :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2, 3, 4학년 학기 중간에 들어가는 것


너희 조선엔 법도 없다며?
법도 없는데 무슨 공부는 공부야.
대 일본제국이나 되니까 너희같이 미개한 조센징을 돌봐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라고.
킥 킥
당신들도 법대생이요?
그렇다. 왜?
그럼 하나만 묻겠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건 합법적인 일이오?


법대생으로서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한
당신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냐는 말이오!
남의 나라 일에
상관 말고 공부나
똑바로 하시오!
김병로는 학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1년 뒤, 김병로는 졸업시험을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했지만 김병로는 편입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법과 졸업시험 합격자

순위	수험번호	이 름	순위	수험번호	이 름
50	10051	야마다	101	10071	미오다
51	10081	요 다	102	10581	오다미
52	10176	요시오	103	00511	미다오
53	10586	미리니	104	00217	오리다
54	17051	미 오	106	01781	리 오
55	10052	요리다	107	00511	야마다
56	00100	마시다	108	12301	나카이
57	00181	마 오	109	11752	케이도




잠깐! 저기 네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
에고, 나도 떨어졌다.


20 170151 요시다
21 01560 야우
22 10578 김병로
23 01150 무리오
24 01765 오다


벼, 병로야!
두근


합격이야!
두근
정말?


270명 중에서 22등이라니! 자랑스럽다.
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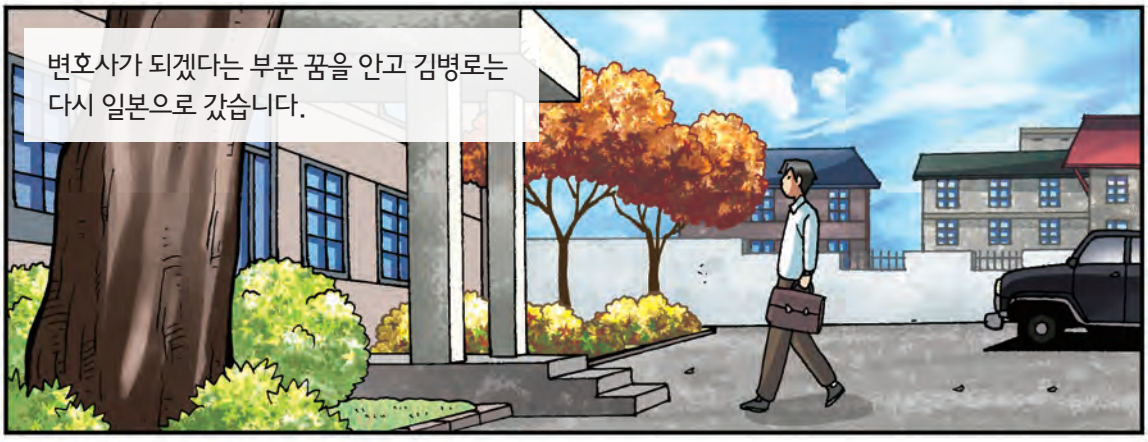

야마우치 교수님!
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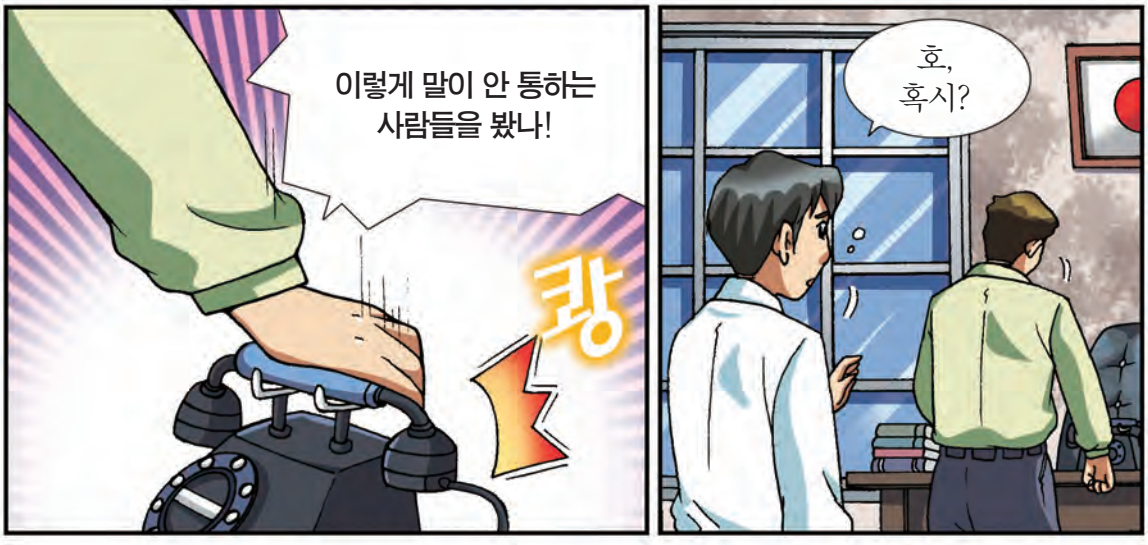
*내각 법제국 : 우리나라 법무부와 유사한 일본의 법률 행정 기관


하
하
하
웅성
웅성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를
통틀어 도쿄에서
법대 졸업한 사람은
다섯 명도 안 될걸.
그런
귀한 인재가
순창에서 나왔으니
내 기분이 다 좋네
그려.
실례합니다,
저…… 김병로
선생님이시죠?
김병로 선생님을
저희 철도회사의
전무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아래의
장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철도회사 위원분들이십니다.
철도회사에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김병로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전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약값도 충분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집도 한 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또르
아뇨.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로 꼭 와주십시오!
뜻은 감사합니다만
꾸벅
제겐 꼭 이뤄야 할 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김병로는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야마우치
교수님
김병로입니다.
뭐라고요?
왜 조선인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봤나!
쾅
호,
혹시?


애를 써봤네만
위에서
일본인 외에는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네.
역시 그랬군요.
뿌득
미안하네.
아닙니다.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주셨는걸요.
꾸벅
하지만 김병로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해요 2

김병로 선생님은 왜 일제강점기에 변호사가 되려고 하셨나요?

김병로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탄압받는 우리 민족을 돕기 위해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셨어요. 아무리 일본 경찰이나 고위 관리라고 해도 변호사한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변호사 수입으로 독립 운동도 지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법정에서 우리 민족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답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마구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착취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일제강점기의 일본법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담겨 있죠.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조선인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일제로부터 탄압받는 조선인들을 변호한다면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들이 변호사가 되는 걸 막으려 했고, 김병로 선생님이 겪은 것처럼 시험을 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재판 광경



독립투사를 변호하러 들어가는 조선인 변호사들.
맨 앞에 선 사람이 가인 김병로 선생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도 법복을 입었답니다

❖ 교수에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귀국 후 김병로 선생님은 경성법률전수학교와 보성법률전문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잠시 근무를 했답니다.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딱 1년만 판사로 일을 한 뒤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김병로 선생님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조선인 변호사의 숫자는 200명 정도 되는데, 시험을 치러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제가 폭력과 억압만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920년대 들어서는 법적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부터 조선인도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김병로 선생님이 법학 교수로 재직했던 경성법률전수학교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외치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 중엔 허헌, 이인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김병로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신 대표적인 변호사들이랍니다. 독립운동 사건이라면 스스로 나서서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은 이 세 분을 '무료변호사' 혹은 '항일민족변호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한 당시에 국민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제와 맞서 싸우는지, 어떤 고초를 겪는지 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판이 열리면 그 내용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국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죠.

항일민족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낱낱이 밝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독립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됐죠.

그래서 김병로 선생님을 비롯한 이들 항일민족변호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독립운동도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답니다.


判檢事增員과
親族相續其他
「思想」表現
言論의解放
吉林扶餘
千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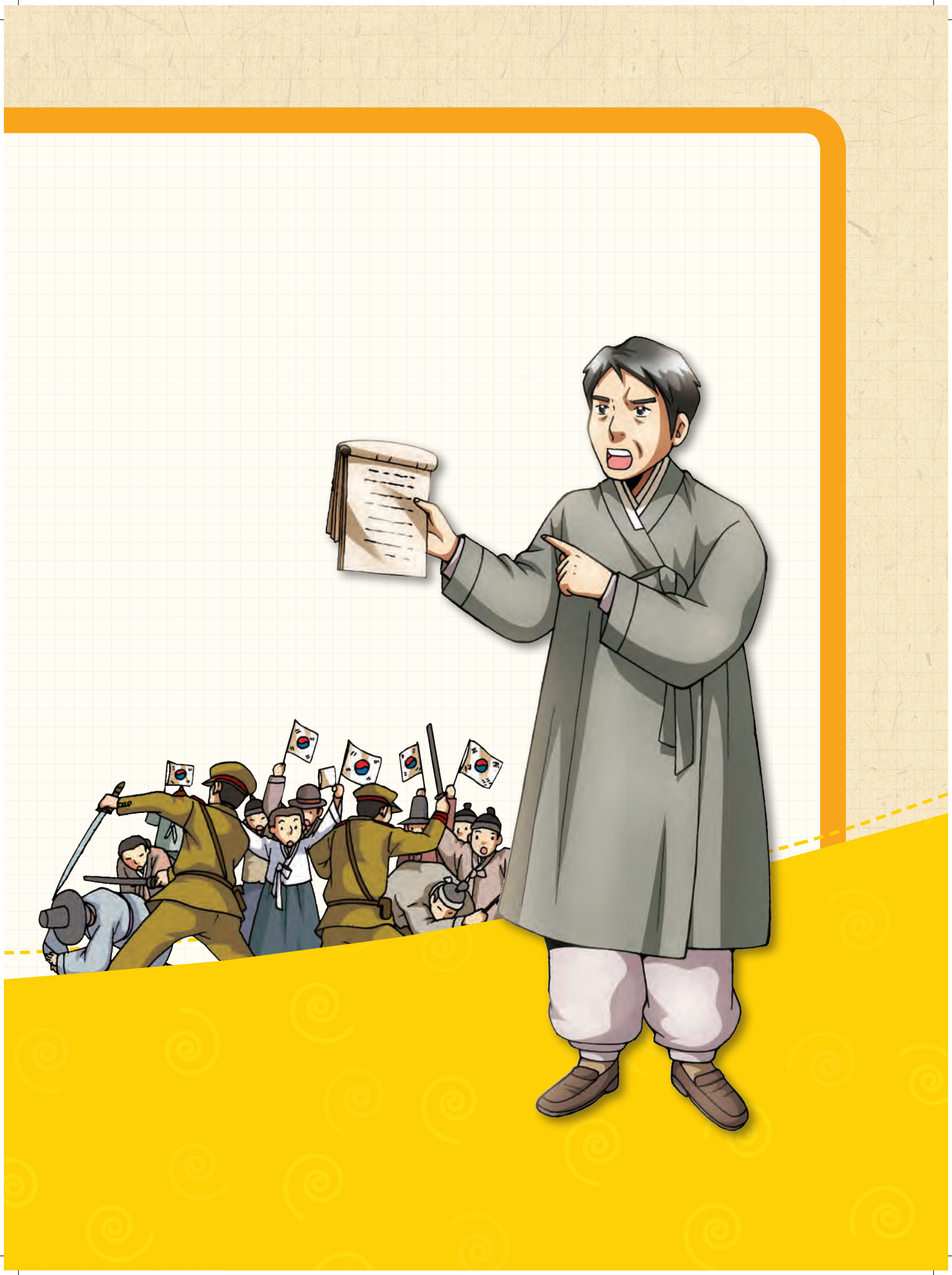
1927년 전조선변호사대회 관련 보도. 김병로 선생님은 이 대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03

독립을 변호하다









***조선총독부** :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행정기관









***문화통치** : 3 · 1 운동 이전과 달리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강압이나 폭력 행사도 최소화하겠다는 일본의 지배 정책. 하지만 말만 바뀌었을 뿐 일본의 탄압은 그대로였습니다.


문화통치로 조선인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도 과거에 비해 넓어졌습니다.
김병로 변호사
축하하네. 드디어 사무실을 열었구만.
하하. 고맙네.
짝 짝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이 이게 뭔가?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리다니.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좋은 사무실이 무슨 소용인가.
김병
하긴 사무실이 중요하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었다는 게 중요하지. 일본 검사들 긴장해야 될 거야. 하하.


김병로는 아내 정연일 씨와 결혼해 4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일세.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나라 상황은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문화통치지, 암암리에 조선인들 핍박하는 건 여전하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는 일이 아주 많다네.
큰일났네.
쾅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터졌네!
폭탄?
벌떡







***의열단** : 1919년에 생겨났으며 일본 고관 암살과 관공서 폭파 등을 통해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의열단은 만주에서 생겨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의열(義烈)은 정의를 열렬히 실행한다는 뜻으로,
의열단원들은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쿠앙
쾅앙
범인을 찾았습니다.
김상옥이라는 잡니다.
이 조센징을
당장 잡아들여!
넵!


김상옥!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나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건 김상옥이라는 34살의 의열단원이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도망치세요!
이혜수의 집
후다닥
하아
하아
김상옥, 어서 나와 죄값을 받아라!
얼른 투항해!
그게 왜 죄요! 일본이 조선인을 고문하고 살해한 죄값이오!
타앙
윽.
픽
당장 쏴버려!
으악!
탕
탕
탕


김상옥은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하고 일본 경찰은 관련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뒤적 뒤적
신화수 (김상옥의 친구)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시치미를 떼!
아니,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죄가 된단 말이오?
시끄러. 끌고 가!
철컥
니놈이 김상옥에게 폭탄 사라고 돈을 줬겠다?
윤익중의 집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윤익중 (김상옥의 친구)
으윽~
으아악
일본 경찰은 김상옥과 관련된 독립운동가 8명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병로와 조선인 변호사 몇몇이 힘을 합쳐 이들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이혜수와 신화수, 윤익중 씨 변호사입니다.
흠, 따라오슈.
빨리 주동자가 누군지 불어!
으악~!
악~!
고문받는 소리인가. 끔찍하군.
으으..
으악
들어가라.
철컹


신화수 선생님,
윤익중 선생님.
저한테는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독립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상옥이한테
180원을
보냈을 뿐이고
어디에 쓰일 줄도
몰랐습니다.
두 분 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재판 때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군요.
변호사 양반,
이혜수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만날 수 없겠소.
몸이
안 좋다고요?



***사식** :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힌 사람에게 사사로이 마련하여 들여보내는 음식



***구형** : 형사재판에서 어떤 벌을 줄지 검사가 판사에게 제시하는 의견


신화수는 김상옥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편지를 받았을 뿐이고,
윤익중은 180원을 주었다고 하나, 김상옥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윤익중이 돈을 보냈다는 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제령7호에서는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그에 동조한 자들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님!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건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윤익중과 신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바라는 마음에서 김상옥과 얘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죄가 됩니까?
그것은 2000만 조선인 모두가 제령7호를 위반한 범죄자라는 논리입니다.
그 말이 맞네.
술렁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제령7호** : 3 · 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제령 7호의 제1조는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하여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코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고, 제2조는 '이를 선동한 자의 죄도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정지** :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감옥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 회복될 때까지 검사나 검찰청이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



***항소** :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비슷한 말로 '상소'가 있습니다.


하하하
김병로 변호사
병로, 이번에 정말 멋졌네.
우리 다같이 한 일 아닌가.
한 사건을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도운 경우는 그동안 거의 없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나?
일본 놈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겉으로야 학술모임인 척해야지.
우리가 주로 담당하는 사건들이 형사사건이니 '형사공동연구회' 어떻겠는가?
좋네, 좋아!
형사 공동 연구회
짝 짝 짝















***신간회** : 1927년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


싹 다 뒤져!
형사 공동
일제는 김병로에게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우당탕
네놈이 감히 공산당을 만들고 모스크바에 첩자를 보내?
모스크바라니 금시초문이오!
이미 신간회 놈들이 다 자백했어!
뭐라고?
안방도 샅샅이 뒤져라.
넵!
이놈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지?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지만 어떻게든 네 놈들을 잡아넣고 말 테다.
김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요?
확인해봤는데 우리가 모스크바로 보냈다는 첩자들은 아예 존재하질 않아. 날조된 게 분명해.
여길 보게. 우리가 사건을 계획했다는 날 회의록일세.
그날은 경찰에, 헌병, 총독부까지 와서 우리를 감시했는데 어떻게 공산당 모의를 한단 말인가.
회의 참석 인명부
총독부 경무국 1 명
경기도 경찰부 2·3 명
종로 경찰서 1 명
헌병대 1 명
이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저질 수작이었어!
부들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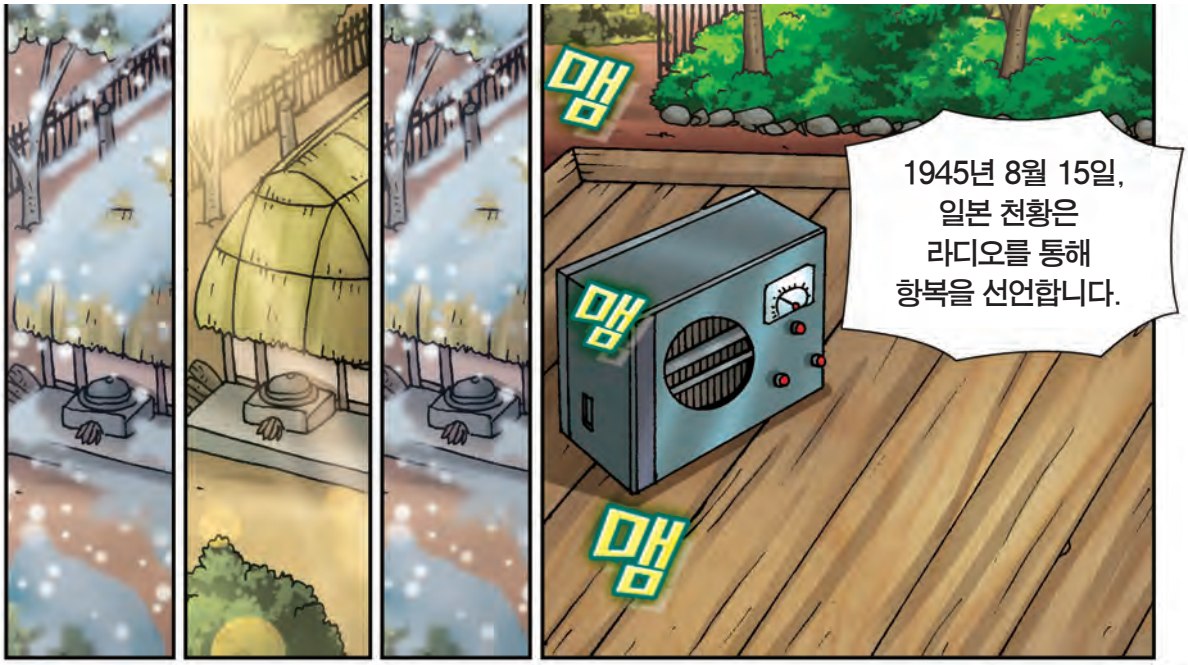
***불기소 처분** :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에 붙이지 않는 것


4. 총독부의 허락을 받은 변호사만 사건을 맡을 수 있음
경성 변호사회 20 인
대전 변호사회 3 인
함흥 변호사회 5 인
총독부가 지정한 변호사만 독립운동 사건을 맡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친일파가 되거나 아니면 떠나라는 얘기겠지.
후우우
형사 공동 연구회
김병로 변호사
자네들은 어쩔 셈인가?
나는 고향으로 떠날까 하네.
나도 시골로 가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네.
그 사이 김병로의 큰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주까지 태어나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지만 무료 변론을 하며 독립운동가들 뒷바라지까지 했던 김병로는 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뒤에 텃밭도 있으니 농사를 지으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게요.
노, 농사요?
이제 변호사도 못 하니 어쩌겠소.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어흠
김병로와 가족들은 농사를 짓고 닭과 돼지를 키워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으앙~ 흰쌀밥 먹고 싶어~
형규야, 할아버지한테 내일 장에 가시면 쌀이랑 고기 좀 사다달라고 하렴.
어험! 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정도 밥상이면 훌륭하지.
대신 이따가 할애비가 머루 따다 주마.
김 변호사님 계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온 겐가. 참, 밥은
먹었고?
네.
독립운동가 후배
요새 서울 분위기는 좀 어떤가?
젊은 청년은 물론 처녀들까지 죄다 끌고 가고 있어요. 정신대라는데 뭔가 수상쩍어요.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네. 본부에 전해주시게.
슥
매번 감사합니다.
바쁜 사람이니 어서 가시게.
후다닥
자네처럼 목숨 걸고 싸워주는 독립투사들한테 내가 더 고맙지.
저기, 차라도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이해를 좀 해주시오.
독립운동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하지 않겠소.
다만 우리 손자들 영양실조만 안 걸리게 해주시구려.
당신하고 같이 산 지가 몇십 년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고맙소…… 영감……


맴
맴
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합니다.


맴 맴 맴
할아버지!
독립이래요.
뭐?
우리나라가
해방됐대요.


김병로가 해방을 맞이한 건 만 57세.
그는 법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던 변호사인
동시에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궁금해요 3

김병로 선생님이 변호한 또다른 독립운동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도산 안창호를 변호하다

김병로 선생님이 맡았던 첫 독립운동 사건은 대동단 사건이었어요. 대동단이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죠. 뒤이어 상해임시정부의 군부차장이었던 이춘숙 의사 사건, 종로경찰서 형사를 총살한 보합단 사건, 폭탄을 반입하다 체포된 의열단 사건, 독립운동단체였던 흑기연맹 사건,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수많은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어요.

여러분은 독립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국민 계몽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변호도 김병로 선생님이 하셨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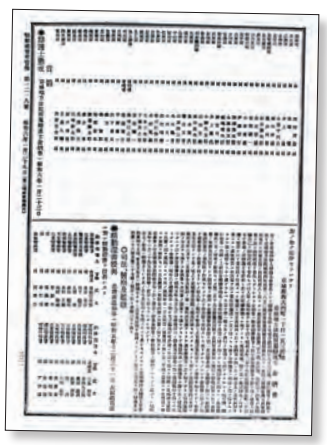


민족항일단체인 신간회 명패와 역대 위원장.
가장 아래 사진이 김병로 선생님

❖ 화전민과 백정, 노동자를 변호하다

김병로 선생님은 변호할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았어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가 남아 있었지만 일찍부터 법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신 김병로 선생님은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북율면 소작쟁의나 옥구 소작쟁의 등 일제의 토지 수탈과 관련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변호사 징계 목록.
김병로 선생님은 6개월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된 사건이 있을 때면 앞장서서 농민들을 보호하셨고 원산 노동자 파업 때에는 노동자들의 변호를, 조선형평사 사건 때에는 백정들의 변호를 맡으셨죠. 형평사란 백정들이 신분 해방을 위해 만든 단체였지만 김병로 선생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 백두산에서 남도까지

1929년엔 일제가 화전민 마을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면서 수백 채의 건물에 무조건 불을 지른 거예요. 김병로 선생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백두산 중턱까지 달려갔어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였죠. 김병로 선생님을 비롯한 항일민족변호사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일제의 관리나 경찰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는데,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변호사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조선인이라고 해도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무척 지위가 높았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자신들이 불리하니까요. 때문에 김병로 선생님은 현장에서 담당자를 찾아 직접 그 부당함을 따지고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일제로부터 핍박받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싸우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 김병로 선생님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 관련 신문기사들 •

도산 안창호 사건 (중앙일보 1932.12.19.)


十九日午前부터
島山安昌浩公
京城地方法院四號
八辯護士
海外運動의 元兇로
前後活動三十年
沒頭한 그의 半生

흑기연맹사건 (동아일보 1925.8.25.)



몽양 여운형 사건 (동아일보 1929.8.12.)


東邊各道尹에게
朝鮮人優待訓令
遼寧省主席이 通達

갑산 화전민 사건 (동아일보 1929.7.21.)


新幹會調査員
海內聯絡
潛入한

북율동척농장소작쟁의 사건 (동아일보 1925.2.23.)


疑問은 一歸!
살려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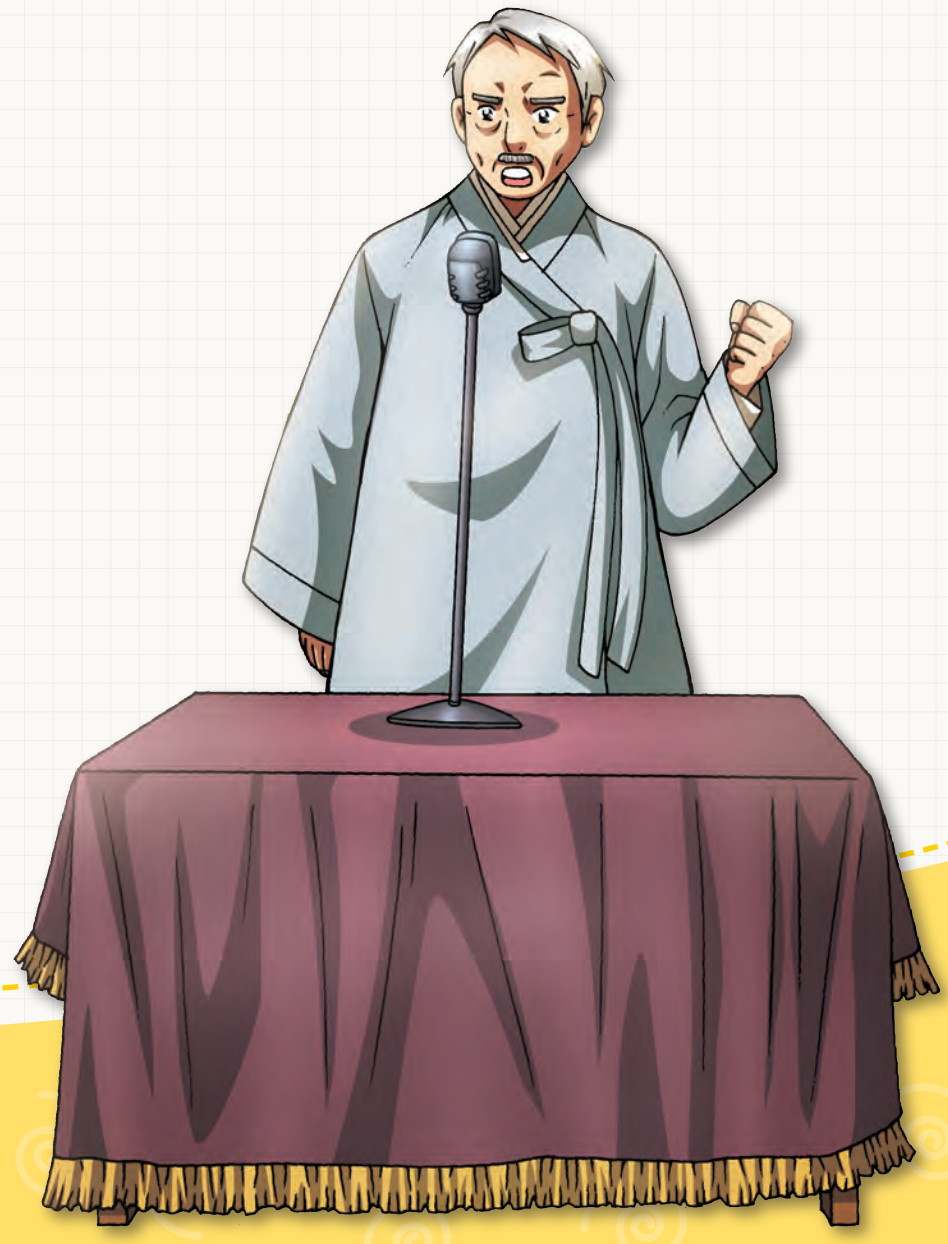
04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다









*신탁통치 : 어떤 나라가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울 때 UN의 위임을 받은 다른 국가가 그 나라를 잠시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후 약 3년 동안 미군이 통치했습니다.


사법부장은 지금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아무래도 옷 한 벌 사야겠어요.
이 옷도 아직 쓸 만한데 무슨 옷을 산단 말이오?
명색이 사법부장인데 양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양복 한 벌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양복이
웬 말이오?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하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어휴~
당신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겠어요.
하하하
대한민국의
사법부장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무슨 일이지?
웅성 웅성
이놈의 빨갱이 새끼들!
저 사람이 공산당이었어?
나도 모르지. 어쨌든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무조건 잡아가니 원.
우리 남편이 빨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 빨갱이 아니에요~
경찰이 빨갱이라면 빨갱이인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빠
앗
몇몇 경찰들은 공산주의자를 잡겠다며 의심이 되면 증거도 없이 무조건 체포부터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 사건 수사, 범인 체포, 재판 등 형사 절차에 관한 법



***법전기초위원회** :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기초 법전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위원회. 정부 수립 후에는 법전편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김병로 선생님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돈도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를 가져오게.
응?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쪽 방에 한가득 더 있습니다.
털
이게 모두 법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인가?
헌법과 관련해서는 17개국 법이 있지요. 일본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법과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이걸 모두 검토하라고요?
이제 우린 죽었다.


밤마다 우리집으로 출근을 하네요.
사법부장님께서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도리가 있나요.
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자네가 맡은 부분이 있지 않나.
고등고시 준비하는 수험생 같으세요.
허허. 하루라도 빨리 만들려면 나라도 서둘러야지.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개정 : 내용을 고쳐서 바르게 함

*발부 : 명령서나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내어 줌



***삼심제** :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사법부장님.
똑똑
판사께서 무슨 일로?
도움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데 이씨가 정씨의 이름을 몰래 사용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씨
정씨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쓰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래서 정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재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그게.


정씨도 법을 어겼잖아요!
이 여잔 남편 허락도 없이 소송을 했다고요.
흠.
여자라서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법이 그렇다잖아! 법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으르렁
휴~ 사법부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대로 따지면 여자가 소송을 하기 위해선 남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왜 피해자인 정씨가 또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일제강점기에는 여자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씨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네?
변호사가 분명 이 소송은 무효라고 했다고요!
지금이 일제강점기인가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여자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남녀는 평등합니다.
따라서 정씨의 소송은 정당하며 이씨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뭐, 뭐라고요?
그것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어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콩밥 먹을 각오해!
아니~ 이 여편네가.
김병로는 잘못된 옛날 법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들이 새 시대에 맞게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김병로는 공정함과, 강직함, 청렴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祝
법관은 법을 수행하는 만큼 더욱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사법부가 소신 있고 공정하게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와아
짝
짝
짝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이 되니 든든하군.
얼마나 강직하신지 사법부장 시절에는 미군들까지 선생을 존경했다고 하더구만.
나도 들었네. 미군들이 김병로 선생이 하는 일에 전혀 간섭을 못 했다며.
사법부장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다니 얼마나 청렴하신가.
김 대법원장님이라면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시리라 믿네.
참 훌륭하신 분이야.


여기가 대법원장실 입니다.
아직 제대로 꾸미지 못해서 누추합니다. 곧 내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나 한번 둘러보세.
네.
필요 없네. 나라도 어려운데 사무실 꾸미는 데 돈을 쓸 필요가 있겠나.
아, 대법원장님!
반갑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저…….
네. 얘기해보세요.
연필 같은 필기구를 수입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국산 연필심이 자꾸 부러져서 일의 능률이 떨어져요.
다른 관공서에서도 외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나도 외제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산을 안 쓰면 누가 국산을 써주겠어요?
우리의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재판정으로 가보세.
네.
법관들 옷 입은 거 봤나?
옷?
무슨 판사들 옷이 저래? 점퍼가 다 낡았던걸.
그러게. 한복까지 아주 다양하더구만.
일제강점기에는 법관하면 왠지 위엄 있어 보였는데 말야.
옷 때문인지 지금은 별로 믿음이 안 가.
다른 건 절약을 해도 법복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흠.


법정은 근엄한 곳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규율에 따라 법복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법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법복입니다. 우리의 법복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새겨 넣으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요. 그럼 모자는 어떻게 할까요?


모자는 크게 만들어서 법관의 위엄을 보여줍시다.
영국 법관들처럼 가발을 쓰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국 법관들이 쓰는 가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처음엔 프랑스 루이 13세가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요? 하하하.
웃을 일이 아닐세.
하하하
그렇다면 왜 하얀색인지 아십니까?
흰머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연륜에 따른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가발에 밀가루를 뿌려 하얗게 만들었답니다.
재밌네요.
하하하.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밀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기도 했지요.
아!
그런 일이.
법복에서
법관의 위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옷도 모자도
간소하게 합시다.
대법원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요.
간소하게
만듭시다.
덕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법복은 단정하고
간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김병로는 언제나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으며 작은 것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왜 난로를 사용하세요?
비싼 기름 대신 연탄이나 톱밥을 태우면 연료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은가.
손님이 찾아와도 커피나 홍차가 아닌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맛이 괜찮지?
네. 아주 맛있습니다.
그의 청렴한 모습은 다른 법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불편하실 텐데 새것으로 바꾸시죠.
괜찮네. 작은 것 하나라도 아껴 써야 나라가 잘살지 않겠는가.
도장이 심하게 닳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대법원장님처럼 근검절약 하자구.
당연하지.


으아앙~
할아버지 미워!
훌쩍
우리 손녀가 왜 할아버지를 미워할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더러 거짓말쟁이래요.
무슨 거짓말?
할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데?
할아버지가 대법원장이면 나처럼 헌옷이랑 헌 신발을 신을 리가 없대요.
흠.


빨리 새 옷이랑 새 신발 사주세요~
이 옷도 아직 멀쩡한데.
지금 거리에 나가면 골목마다 밥을 구걸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단다. 하지만 우리는 밥은 굶지 않잖니?
남는 돈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게 우리 모두 행복한 일이지 않겠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
앞으로 친구들이 놀리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헤~
예쁜 우리 손녀 똑똑하기도 하지.


여보, 친구 분이 찾아오셨어요.
최 변호사 왔는가?
그래. 잘 지냈나?
낚시를 갔다가 잉어를 많이 잡아서 몇 마리 가져왔네.
첨벙
첨벙
오늘 저녁은 매운탕을 끓여야겠네요.
아주 싱싱합니다.
매운탕은 무슨!
버럭
다시 가져가시게.
왜? 잉어 싫어하나?


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의심받을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자네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누릴 것도 누려야지.
우리끼리야 친구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나는 법관일세.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해.
철두철미 하구만.
진정한 법관이라면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했네.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지만 김병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청렴함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대법원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1956년 5월, 대법원 연합부 재판 광경

❖ 사법부의 수장

우리나라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 국가예요. 국회에서는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입법부),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나라 일을 하죠(행정부).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예요.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 전체를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3부요인이라고 부른답니다.

❖ 사법부란 어떤 조직인가요?

앞서 설명한 삼심제는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제도로,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려요. 그래서 사법부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터 고등법원과 지방 법원, 그리고 특허법원과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법원, 뿐만 아니라 법관을 교육하는 사법연수원과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등도 포함된답니다. 대법원장은 이처럼 큰 조직에서 일하는 법관과 직원들을 임명하고, 행정적으로 지휘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 대법원장님도 재판을 하나요?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보통 재판은 대법관 4명이 담당해요. 판결이 나기 위해선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를 이뤄야 하는데,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있다면 전체 대법관의 2/3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다시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대법원장은 이때 재판장을 맡는답니다.

❖ 어떻게 하면 대법원장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용기와 소신, 인권의식, 정의감은 물론 사법부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갖추어야 하겠죠? 당연히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할 테고요. 대법원장은 40세 이상 판사나 검사 등 경력이 15년 이상인 연륜 있는 법조인들 가운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임기는 6년이고 평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면 우선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부터 되어야겠죠? 법조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만큼 책임도 큰 직업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가치 있는 일이랍니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소법정

05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친일파를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친일파를 처단하라!
제일상회
친일파처단
일제의 앞잡이를 몰아내라!
친일파 경찰이 웬 말이냐.
친일파 경찰들을 모두 해임하라!
해임하라!
아무리 나라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해도 일제 앞잡이들을 관직에 그대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뿐인가, 친일파 놈들은 다들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 : 1948년에 만들어진 법률로 친일 행위를 한 자를, 그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에서 재산 몰수 등에 처하게 했습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처벌자 명단에 상류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니 반발도 심하겠군요.
정치권에도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지도부에도 친일파가 상당수라니 이거 원.
경찰은 무력을 쓸 수도 있으니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못 하겠지요.
저희는 대법원장님만 믿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같이 하는 일인데요.
웅성
웅성
에라이 나쁜 놈들아!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어!
저놈들이 잡혀가는 걸 보니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구만.



***밀양폭탄 사건** : 1920년 의열단원이었던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 사건.
공식 이름은 '밀양경찰서폭탄투척의거' 사건입니다.


천만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웅성 웅성
거짓말하지 마!
네가 한 짓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땅 땅 땅
피고인, 거짓말을 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절뚝 절뚝


콜록
아, 아니
저놈이 왜!
증인은
피고인 김태석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자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태석은
제 동료 열다섯
명을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각목과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굶기며
물고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자에게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슬렁
슬렁
변호인, 변론하세요.
김태석이 일본인 밑에서 일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석의 변호사
하지만 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재판장님,
경찰이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는 게
죄입니까?
웅웅
그때는 일제
강점기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독립운동가가
도둑이고 강도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판결을
하겠
습니다.
김태석은
그 죄질이 심히
사악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
치지
않으므로
무기징역과
재산몰수형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땅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덜덜
와
아


1천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한 또다른 친일경찰 김덕기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땅
땅
땅땅
사형이라고?
부르르
친일경찰 김덕기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역시 김병로 대법원장이야.
와아
유명한 친일경찰 중엔 노덕술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노덕술은 해방 후에도 경찰 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내 김병로 이놈을!
탕
들어와!
똑똑
친일경찰 노덕술
수사과장님. 그자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뒤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노덕술과 몇몇 친일파들은 김병로를 비롯한 반민특위 위원들 15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관장 김병로
검찰총장 권승렬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네.
슥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자네 뒤도 봐주지.
하지만 실수가 있을 땐…… 알지?
네. 그럼.
저놈을 믿어도 될까요?
이걸로는 부족해.


뇌물일세.
정치권이건 법조계건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로비를 하게.
알겠습니다. 수사과장님!
척
친일파들은 김병로를 직접 찾아와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알면 제가 혼나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래도 옛날에 잘 알던 사이인데 얼굴은 보고 가야죠.
누가 왔소?
드륵



*창씨개명 :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없애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던 일본의 정책 중 하나로 강제로 일본식 이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병로…….
죄를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당장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크흑.
김병로는 친한 친구였더라도 친일파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콰
지
김병로를 해치려던 암살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노덕술, 꼼짝 마!
쿠
당
탕
후
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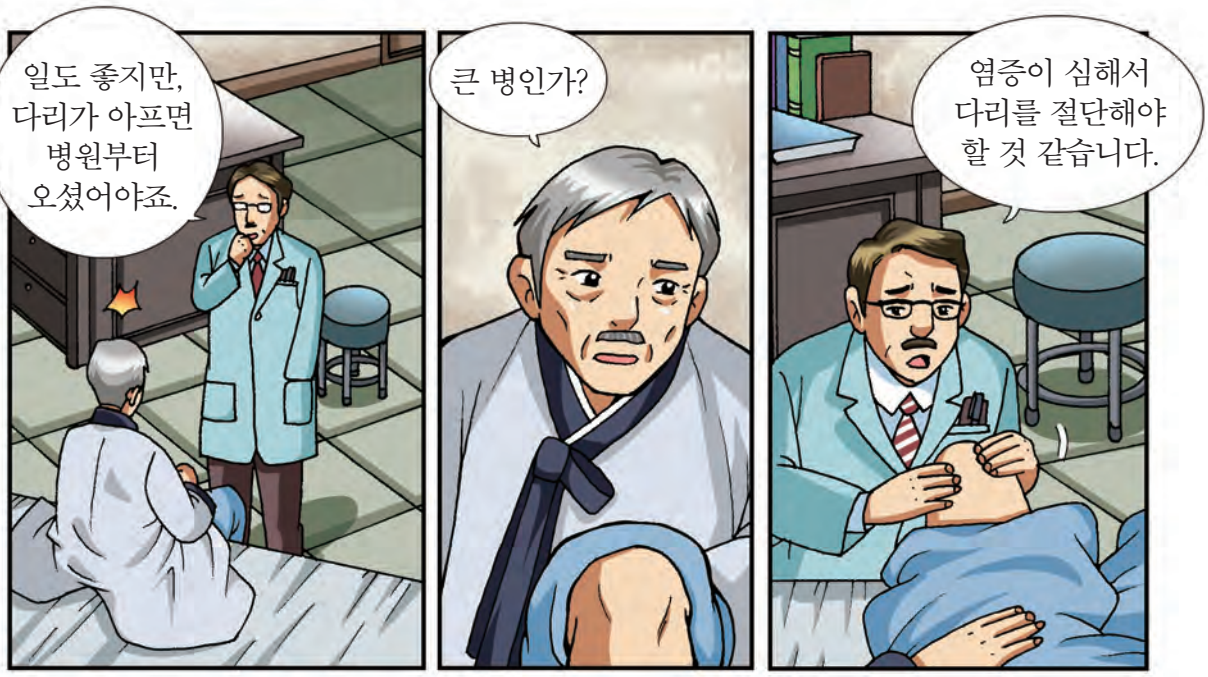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쏴버릴 거야.
쿠당
탕
노덕술, 너를
반민족행위 및
암살 계획 혐의로
체포한다!
니들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소식
들었는가?
종로경찰서
노덕술
수사과장님에 이어
사찰과장님도
체포되셨다네.
친일경찰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잡혀가겠어.
뿌득


다른 방법이 없네. 자네 아래 경찰들을 모두 모아.
왜 그러는가?
우리는 아직 경찰 아닌가. 우리가 먼저 반민특위 놈들을 체포하자고.
경찰 간부로 일하고 있던 친일 경찰들은 부하들을 동원해 급기야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합니다.
특별조사 위원회
우르르
이게 뭡니까! 대체 왜 이래요!
경찰이 조사할 게 있다는데, 잔말 말고 따라와!
지금 검찰총장인 나를 건드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경찰서로 끌고 가. 서류는 모두 압수해!
넵!
특
위원회


뭐라고?
친일 경찰들이 감히 반민특위를 습격해?
쾅
당장 그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
그런데 대법원장님. 더 큰일이 있습니다.
더 큰일이라니?


경찰이 없으면 당장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며
일부 정치가들이 친일 경찰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당장 기자들을 불러 모으게.
반민특위를 습격한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 없이 법에 따라 판결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이 엄청날 텐데.
그러니 김병로 대법원장님이지.
저런 분이라도 계셔서 그나마 다행 아닌가.
펑
그런데 얼마 뒤, 김병로는 골수염을 진단받습니다.
정형외과


일도 좋지만, 다리가 아프면 병원부터 오셨어야죠.
큰 병인가?
염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리를 자른다고?
나라 일을 우선하느라 미처 건강을 살필 틈이 없었던 김병로는 왼쪽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 6 · 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콰
쾅
콰
콰
쾅
앙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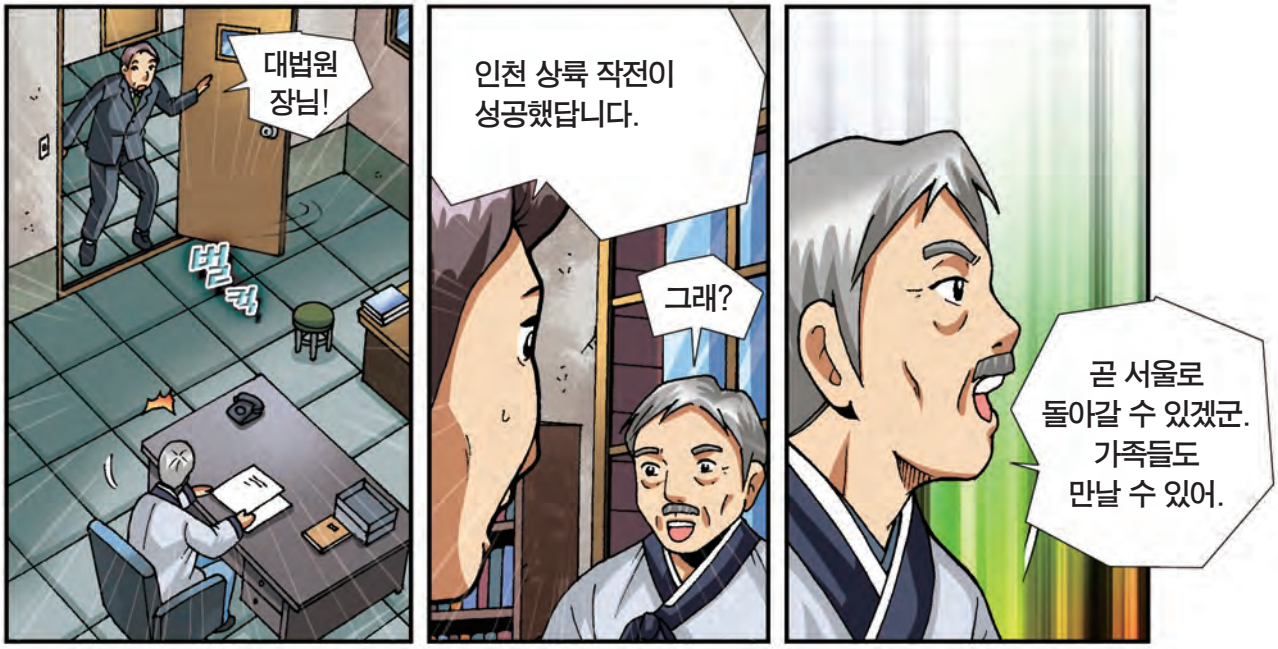

다들 짐은 싼 거요? 어서들 나와.
어디로 피난 가는 건데요?
난 정부를 따라 가야 하니, 당신은 우선 담양 친정에 가 계시오.
저랑 가족들만요? 다리도 성치 않으신 분이 혼자 어쩌시려고요.
괜찮소. 나라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과 가족만 챙겨서야 되겠소?
당신은 이 순간까지도 나라가 먼저군요.


같은 민족끼리 설마 오랫동안 싸우겠소. 며칠이면 끝날게요.
다리 조심 하시구요.
당신도 몸 조심하구려.
에휴. 제가 또 포기해야지요.
수술 부위 소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미안하오 부인. 우리 곧 다시 만납시다.


김병로는 정부가 피난 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 산
BUSAN
12 km
부아앙
부산의 임시 법원
대법원장님 드릴 음식이 없다니?
행정부에서 준비를 못 하는 바람에.
어제 저녁도 죽 한 그릇을 겨우 드셨는데.
신경 쓰지 말게. 자네들도 모두 못 먹지 않았는가.
죄송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게 당연하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군.


얼마 후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연합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북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쿠
쾅
콰
앙
콰
앙
63


와 아
후퇴!
후퇴하라!


대법원
장님!
벌컥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답니다.
그래?
곧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겠군.
가족들도
만날 수 있어.


모두들 무사하겠지? 다들 보고 싶구나.
그런데 그 사이 김병로의 부인이 피난 가 있는 담양엔 북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쾅
김병로의 부인은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탕 탕 탕


대법원장님,
사모님께서
그만…….
주르륵
당신을 부산으로
데리고 왔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크윽


철퍼덕
미안하오, 여보.
대법원장으로서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김병로는 그렇게 아내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으허엉



궁금해요 5

김병로 선생님이 만드신 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은 뉴스에서 '오늘 ○○○의원이 ○○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법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나라엔 지금 수백 개에 달하는 법이 있답니다.

김병로 선생님이 만드신 법은 바로 그 법의 뿌리가 되는 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민법, 형법을 일컬어 3대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김병로 선생님은 특히 형법과 민법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회의를 주재하는 김병로 선생님

❖ 범죄를 막는 형법

누군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겠죠? 바로 이때, 도둑에게 무슨 죄로 얼마나 벌을 줄지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이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률이랍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김병로 선생님이 만드신 형법 초안



처벌하기 위해 열리는 재판을 형사 재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범죄자한테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법

이번엔 친구A가 장난으로 친구B를 밀었는데 친구B가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예요. 하지만 친구A의 부모님이 부자인데도 병원비를 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병원비가 필요한 친구B의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요청했어요.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재판을 민사 재판, 그 근거가 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지켜야 할 개인의 권리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밝혀서 누군가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거죠.

김병로 선생님은 6·25전쟁 중에도 법전 편찬을 강행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부터 체계적인 법을 갖출 수 있었답니다.



김병로 선생님이 만든 민법 초안



1953년 김병로 선생님 임기 당시 만들어진 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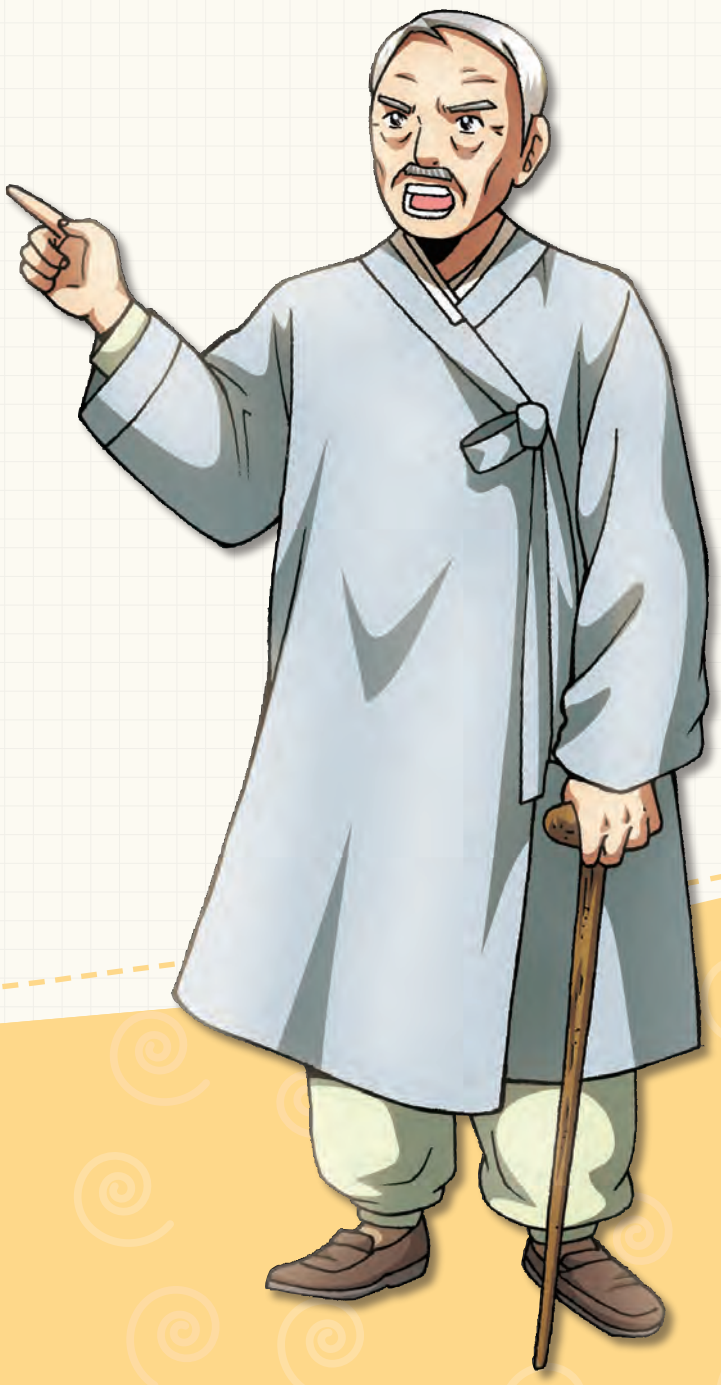
2013년 현재의 법복

06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다








1950년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제3투표소
서민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 대부분이 무소속이라니.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나.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탕
탕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여당 당선자는 210명 중 고작 14명에 불과했어요.
이따위로 할 거면 정치 그만두세요!
죄,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나셨군.
이대로 가다간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야.
대통령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대통령께 반대하던 서민호 의원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민호 의원이 살인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흐음


서민호 의원 사건이 일어난 건 밤 9시경. 서 의원은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다들 드시지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당을 막아야 합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라! 이게 누구 목소리야?
콰앙
서민호!
너 잘 만났다.
누구시오?
서민호 / 당시 국회내무위원 · 무소속


쏜다! 딴놈들은 비켜!
철컥
탕
퍽
서민호, 거기 서!
탕
탕
쿠당
탕
피융
윽
저놈은 대체 누구지? 왜 나를 죽이려 하지?
어쩔 수 없다!
탕
으악



***정당방위** :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가해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순시 :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보살핌


서민호 의원 사건 때문에 고민이 많지요?
대법원장님. 판사로서 재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
정치권에서 살인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이 심합니다.
대통령까지 그러시니 이 일을 어찌 해야 할까요?
양 판사.
예, 대법원장님.
우리는 법관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판결해야지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나를 믿고
법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러다
대법원장님께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게
내 일인데 대체 누가
뭐라고 한답니까.
대법원장님.
법관들을 보호하는
것도 제 일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하하.
껄껄


탁
탁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라니 도대체
이런 재판이
어디 있소?
맞습니다.
엉터리 판결입니다.
재판을 다시
해야지요.
지금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셨습니까?
깜짝
저희 사법부는
올바른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끙



*상소 : 항소에 비슷한 말. 75쪽 참조


어쩌려고 저렇게 세게 나가는가?
으이그. 적당히 타협을 하지.
이후로도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김병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법부는 행정부와 협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들이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재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폭군적인 집권자가 법을 이용하는 건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뿐이라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내가 잡아 넣으라던 놈은 어떻게 되었소?
검찰이 잡아 넣었으나 법원이 풀어주었습니다.
대법원장, 이번에는 또 어찌 된 일이오?
장관님께서는 사건 기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사건 기록이요? 그게…….
저는 사건 기록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드리지요.
끽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군.


지방의 한 법원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건 정치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증거만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속을 해야 그놈에게 자백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죄가 확실치도 않은데 구속부터 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제길~
검사님, 또 영장이 안 나온 건가요?
증거를 더 가져오라네!


저 판사, 지난번 판결에서도 그러더니…… 우리 경찰하고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
암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라고요.
국밥
스윽
흐음.
돼지국밥


김 판사, 왜 이렇게 늦었어?
경찰인지, 검찰인지 아무래도 내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뭐야? 대체 왜?
뻔하지 않은가. 영장을 안 내줬거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거겠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 이거지.
경찰하고 검찰 눈치까지 봐야 하다니 판사 일도 정말 못해먹겠구만.


이 소식이 김병로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판사 뒷조사를 하다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련된 서류를 모두 나한테 갖고 오게!
네! 대법원장님.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릴 보호해주시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정말 든든해.
우리도 대법원장님처럼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는 법관이 되자고!
하 하 하
그래! 정의로운 판사가 되도록 노력하세.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뿌리치며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대법원장, 나와 함께 정치를 해볼 생각 없소?
정치요?
그렇소.
대법원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치가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요.
척


저는 정치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저 대법원장으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저는 이만.
대법원장!
그 사람 참…… 강직함을 당해낼 수가 없구만.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김병로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
김병로입니다.


1957년 12월, 김병로는 만 70세로
정년퇴임을 맞았습니다.
9년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한
농담이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
하


사법부를 떠나기 전, 그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보니 가슴 아픈 일들이 떠오릅니다.
법관 여러분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무척이나 적다는 걸 알면서도 청빈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소신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모두 알 것입니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습니다.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아아
짝짝
와아아
짝짝
대법원장님 같은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김병로는 9년 3개월간 대법원장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도 가인 김병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퇴임 후 김병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병로 선생님은 '세상 사람이 다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셨죠. 어떤 정당이든, 정부든, 대통령이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면 비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신문기자들은 김병로 선생님의 집으로 몰려갔다고 해요. 법조인이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실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셨으니까요.



1957년 김병로 선생님의 대법원장 퇴임식

• 퇴임 후 김병로 선생님의 기고문, 인터뷰 기사 •

대법원장 제청권 삭제는 부당 (동아일보 1958.3.15.)


立法府處事放恣
金炳魯氏 提請權削除企圖를 詰難

가인의 신춘방담, 국민권리 수호하자 (동아일보 1959.1.1.)


東亞日報
國民權利守護하자
온갖不法·不正을 剔抉


權力濫用排除하자
不正選擧는 千秋의 恨

권력남용 배제하자 (동아일보 1960.1.1.)


法理論的으로 본 保安法波動
前大法院長 金炳魯翁의 見解
國民은 惡法廢止를 要求할 權利가 있다
通過 二四 保安法등은 無效

법리론적으로 본 보안법 파동 (동아일보 1959.1.10.)



❖ 정치가로 추대되다

김병로 선생님은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국민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으셨어요. 특히 야당과 대학생들, 그리고 법조인들은 김병로 선생님 같은 분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김병로 선생님은 1960년 자유법조단이라는 정당을 출범시키고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향인 전북 순창에서 출마하셨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신 데다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다 보니 낙선하고 말았어요.



김병로 선생님 흉상

❖ 법과 정의의 수호자

얼마 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어요. 김병로 선생님은 군부 독재에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윤보선, 이범석, 허정 등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군부 독재를 대신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대통령을 내기 위해 노력하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4년 1월 13일, 인현동 자택에서 78세를 일기로 운명하시고 말았답니다.


큰님 그는 가셨네!

街人 金炳魯先生 社會葬 엄수

鎭魂歌도 구슬퍼라 市民들의 哀悼속에

中央

1964년 사회장으로 치러진 김병로 선생님 장례식
(동아일보 1964.1.19.)

많은 국민들이 장례식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롭고 강직하며 청렴한 성품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김병로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 사회의 위인이랍니다.



정의를 바로세운 **우리나라 첫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1판 1쇄 인쇄 | 2014년 1월 3일
1판 1쇄 발행 | 2014년 1월 10일
펴낸곳 |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137-750)
02) 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www.scourt.go.kr(사법발전재단)
글 · 디자인 | 콘텐츠하다 www.contentshada.com
그림 | 이두원
연구 · 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 3480-1262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